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	보 도 자 료	http://www.kisti.re.kr
2015.12.18.(금) 조간(온라인은 12.17.12:00)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식 042 - 869 - 0960 / 강동기 0967 문의: 송중석 첨단연구망정보보호실 선임연구원(0729)		
배포번호 : 2015-54 배포일자 : 2015.12.17.(목)	매수 : 보도자료 2매	배포처 : 대외협력실

사이버 해킹공격 실시간 분석 기술, 중소기업으로 이전

- KISTI,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을 정보보호 전문업체 ㈜코닉글로리로 1억에 기술 이전 -

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이 12월 17일 목요일 사이버 해킹공격 실시간 분석 기술을 정보보호 전문 중소기업인 '㈜코닉글로리'로 선급 기술료 1억원에 이전했다.

□ 이전된 기술은 '보안이벤트 자동검증 기술'로, 사이버 보안 전용 장비인 '침해위협관리 시스템(TMS)'와 '침입탐지 및 방지시스템(IDS/IPS)' 등이 탐지하는 보안 위협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해 사이버 침해공격과 정상 행위를 자동으로 판별해 준다.

o 분석 요원에 의한 수동분석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시스템 기반의 자동분석 체계로 전환이 가능해 보안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기술로 기대된다.

□ ㈜코닉글로리는 주력 제품인 TMS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.

o 특히 TMS, IDS/IPS 등 전용 보안장비는 국가정보원(NIS)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(NCSC)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기관*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핵심 시스템이어서 눈길을 끈다.

* 33개 부문 사이버안전센터 및 대부분의 각급 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

o 조명제 ㈜코닉글로리 대표는 "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당사의 주력 제품인 침해위협관리시스템에 적용해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하다"며 "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□ 기술 개발을 주도한 송중석 KISTI 선임연구원은 “자동분석체제로 변환이 되면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신·변종 및 대규모 해킹공격에 대해 조기에 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(끝)